

## 풍요롭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己亥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황금돼지띠’라 하여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죠. 사우회원님들 가정에도 좋은 일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2월 말로 회장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별 탈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우회가 재정적 측면에서 전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취임 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써 회원 여러분께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동호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신규 회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가, 기왕에 치러왔던 여러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하려던 계획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비롯해 ‘저렴한 비용의 종합건강검진’, ‘합리적인 가격의 추모공원 이용’, ‘장례의식의 실비 혜택’등 회원님들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혜택은 회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월 정기총회가 끝나면 사우회 사무처는 3월부터 새 집행부로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새 집행부에 회원님들의 배전의 협조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올해는 사우회 신규 회원 가입도 늘어나고, 본사의 경영 형편도 금년보다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비판적 충고’보다 ‘긍정적인 격려’가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기회 있다면 선배로서의 애정과 경험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선·후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고향 MBC’와 ‘MBC의 연장인 사우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우회원 여러분, 나이테가 늘수록 최고의 덕담은 ‘건강관리 잘하세요’입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로 나날이 즐거운 새해 맞으시길 다시 한 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MBC사우회장 이 연 현

## ‘새로움’을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우회 선배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좀 서툴고 비틀거리는 MBC를 지켜보며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응원,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2018년 마지막을 장식한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축제를 보면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쑥 컸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올해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겁니다. MBC 예능은 대세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도 큰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보도와 시사교양도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많이 탔습니다. 라디오도 새로운 시도를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렵고,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장은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지난 연말, 창사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전략을 짜고, 수익을 창출하고, 조직을 꾸려나가는 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미래의 플랫폼인 OTT플랫폼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파트너와의 협상도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우리 OTT플랫폼을 세계 속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토대가 마련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뭔가 대비책을 만드는 순간 ‘올드’해지는 변화의 속도 때문에 ‘미래전략’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수록 미래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는 초고품질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날이 새롭게 태어나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해 시청자와 만날 것인가. 우리의 조직을 미래에 맞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인재를 뽑고, 최고의 인재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고, 치열하게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저와 MBC 구성원들은 선배님들이 평생을 바쳐 가꿔 온 MBC가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올 한 해 ‘새로움’을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문화방송 사장 최 승 호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 MBC엔 좋은 방송 향한 꿈의 DNA 있어 -내게 열 명의 전사를 주시오-



박찬순  
(편제, 소설가)

“그때 우린 새파란 풋내기였고 국장님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대선배였는데, 이제 같이 늙어 가는 처지가 됐군요” 우리 중에 패셔니스타로 불리는 미학과 출신 동기가 선배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농담을 건넸다. 질게 물든 나뭇잎이 추풍에 날리던 지난 가을, 어린이 대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조출한 다가구 주택, 사면이 서가로 둘러싸인 거실에서였다. 입사 50주년을 맞은 ‘68라디오 동기’들이 자신들을 뽑았던 서규석 당시 라디오 국장을 문병하는 자리였다.

병환 중인데도 선배님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고 예의 꽃꽃함은 여전했다. 모처럼 둘러앉아 함께 맥주를 마시는데 선배 못지않게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팬 동기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문득 우리 모두가 세월과 싸워온 ‘인생의 전사들’이라는 느낌이 머리를 스쳤다. 그 순간, 우리를 뽑을 당시 서 국장이 사장에게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TV 개국 준비 팀에서 라디오 PD를 대거 데려가려 하던 때였다.

“내게 먼저 열 명의 전사를 주시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신입 라디오PD 열 명은 기자 네 명, 엔지니어 두 명과 함께 68년 11월 1일 인사동 동일가구, 그 뼈격거리는 나무계단을 올라가 MBC에 첫 발을 내디뎠다. 가구점에 세 든,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 벤처기업이었다.



수습교육 때 서 국장에게서 배운 롱펠로우의 시 <화살과 노래>는 우리 가슴에 ‘방송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주었다. 허공을 향해 쏜 화살과 우리가 부른 노래는 훗날 뒷동산 참나무와, 또 친구의 가슴 속에서 되찾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쿼의 <라디오 GaGa>라는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이 당시 라디오는 젊은이들에게 “함께 밤을 지새우던 친구”였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라디오에서 배운” 것이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낀 그는 <방송 윤리규정>을 만들고 <방송의 질과 균형>에 관한 연구에도 앞장을 섰다. 73년에는 TV 열풍에 활기를 잃은 라디오의 부흥을 위해 RR30(라디오 르네상스로 청취율 30퍼센트 달성)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1969년 봄, 편성부 MT, 춘천 세종호텔(右로부터) 박찬순, 윤혜경, 장명호, 주현일, 문숙영, 고무송, 김옥성, 김휴선

그런 분위기에서 동기들은 <별이 빛나는 밤에, 장명호>, <법창야화, 고무송>, <인생은 60부터, 최호룡>, <고전의 향기, 김인규>, <신문고, 청춘 편지, 박재환>, <강 따라 물 따라, 김영근>, <가정음악실, 정상자>, <주부휴게실, 박찬순> 등을 제작하며 라디오의 주축이 되었다.

특히 69년 시작된 <별이 빛나는 밤에>는 지금도 살아남아 ‘밤의 교육부장관’이라는 평을 듣는다. 또 고발 프로 <신문고>를 연출하던 박재환 PD가 중앙정보부 직원과



끝까지 맞서 싸운 일은 숨겨진 일화로 남아 있다.

그 뒤 70년대 중반, TV와 경쟁사(TBC+KBS)로부터 협공을 받게 된 MBC 라디오에는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주역도 동기들

한 다큐 <소녀의 기원, 장명호>은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ABU(아시아방송연맹) 방송대상(77년)을, 드라마 <이어도, 최호룡>은 ABU 라디오 부문 금상(84년)을 수상했다.

그러나 여자 PD들은 여직원의 가정생활을 끔찍이도 염려하는 회사 측의 배려로 결혼과 동시에 일손을 놓아야만 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80년 신군부에 의한 강제 해직의 회오리 속에 동기 한 명과 서 국장이 그 명단에 오른 것이다.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 동기는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됐다. 한창 재능을 꽃피우려 하던 순간에 닥친 날벼락이었다. 그 사건은 무력감 속에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 행정력을 인정받아 비서실장으로 발탁되기도 하고, 다른 꿈에 이끌려 이민을 가거나, 학계로 가기 위해 회사를 떠난 동기들도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풍파가 치고 간 지금,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끌어안은 듯 자글자글한 주름사이로 너그럽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편안한 얼굴로 변해 있다.

선배와 포즈를 취한 동기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나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 시절, 대중문화의 기수를 자처하던 그 패기만만한 젊은 전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슴 가슴마다 미완의 꿈 한 자락씩을 아직도 품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여 한 가지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MBC에는 선배들이 심어놓은 ‘좋은 방송을 향한 꿈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이었다. 라디오 만의 장점인 ‘퍼스널리티’ 제도를 도입, <여성살롱 임국희예요, 최양목>, <홈런출발 김동엽입니다, 황기찬>, <김자옥의 사랑의 계절, 황기찬>과 같은 프로로 위기를 돌파했다.

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의 임국희 아나운서, 홈런 볼이 배트를 때릴 때 나는 듯한 탕탕한 목소리에, 빨간 장갑의 마술사 김동엽 감독, 멜로드라마의 아이콘인 김자옥 등의 기용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방향만 제대로 잡고 몇 달만 바짝 신발 끈 매고 뛰면 누구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는 ‘MBC 신화’는 아마도 그즈음 생겨난 것이 아니었는지.

프로그램의 해외 수상도 동기들이 일궈냈다. 물과 생명을 주제로



경·조사

■ 구순 ■

백병기(업무)03/16

■ 팔순 ■

정기정(특별)02/02	김보영(관리)02/03	손동용(편제)02/08
이종민(관리)02/16	김민식(고문)02/22	이보근(관리)02/22
박춘수(업무)02/26	김은택(전주)02/27	이동하(대구)03/01
조석영(ANN)03/07	맹석기(관리)03/09	김태인(편제)03/13

■ 고희 ■

정태식(기술)02/04	이석원(관리)02/09	최영호(편제)02/16
조태병(편제)03/23	황혁정(관리)03/26	

■ 회갑 ■

손관승(보도)02/01	한범수(편제)02/06	박종덕(편제)02/17
권오덕(관리)03/09	김경중(보도)03/18	

■ 결혼 ■

이성길(관리)아들10/20	윤영관(편제)아들12/01
김금봉(관리)장남12/01	김세하(감사)장남12/01
김종국(보도)아들12/08	김경로(기술)장녀12/09
박두식(관리)차녀12/15	류재영(편제)차남12/16
김영금(관리)장남01/19	이병로(관리)장남01/19
김영일(보도)아들02/16	

■ 부음 ■

이영곤(편제)장모상11/12	곽성문(보도)장모상11/14
이석현(편제)장인상 11/14	정옥균(기술)상배11/16
권태석(관리)모친상12/01	이은규(편제)부친상 12/04
홍석진(기술)장모상12/12	양운수(기술)부친상12/22
심준보(업무)장 모상12/22	최영식(관리)장인상12/23
윤창호(편제)모친상12/26	신동수(관 리)모친상12/29
강인숙(관리)모친상12/29	송일준(편제)부친상12/29
육수길 (관리)장모상01/03	박순호(관리)부친상01/04
심준보(업무)부친상01/09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신동석(관리) 010-9292-5525 서대문구 증가로 191  
이순임(관리) 010-3701-7161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0  
차영목(관리) 010-2051-5223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한광섭(ANN) 010-9105-2260 광진구 독섬로 52라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허명강(관리)**  
1월 1일 별세  
했다. 향년 81  
세. 1976년 총  
무부에 입사  
해 수송 업무  
에 종사하다  
1993년 퇴직

했다.



**고영일(관리)**  
1월 3일 별세  
했다. 향년 73세.  
1973년 입  
사, 광고국장  
과 미주지사  
장, 삼척MBC

사장을 지냈다. 2014년 바둑동호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일시: 2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종로2가 파노라마뷔페  
안건: 1) 2018년도 결산 승인,  
2) 2019년도 예산(안) 승인,  
3) 임원 개선 등

회원 여러분의 정기총회 참석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  
니다. 중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  
시고, 참석이 어려우시면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차기 회장 후보로 차인태 회원 의결

2019년도 제1차 사우회 이사회 27일(수) 11시 종로2가 파노라마  
가 1월 10일 오전 사우회에서 열 뷔페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회  
렸다. 이사회에서는 회장단 회의 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에서 추천된 차인태 회원을 2월

■ 연회비 ■

11월: 강철호('19) 곽성문('17~'18) 권오형('19~'25)  
노홍식('18) 박문식('18) 이종구('17) 이해결('19~'20) 장석호('18)  
12월: 권수훈('18) 김관영('18) 김종수('19) 김종연('19) 박광성('19)  
박한성('19) 육창웅('18) 이승문('19) 인형식('17~'18)  
진수웅('18~'19) 최영식('18~'19) 최영호('18)  
1월: 강복주('19) 서성하('16~'18) 육수길('18~'19) 이성호('19)  
정명환('19) 한광섭('19) 허명강('11~'16, 80세 납부 끝)

■ 평생회비 ■

이순임(관리)01/01 신동석(관리)01/02 차영목(관리)01/02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이영삼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1  
이종례 동작구 등용로 14길 30  
보도 : 김흥기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11  
이성수 성북구 성북로4길 52  
기술 : 방준식 성동구 독서당로62길 24-13  
양운수 강동구 아리수로91길 24-9  
유재석 010-8729-3732  
윤종선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38  
업무 : 원정만 010-9129-2330  
관리 : 김영금 경기 파주시 심학산로 385  
나일수 강서구 화곡로58길 33-5  
이보근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108번길 15  
이진숙 종로구 송인동길 21  
정 준 구로구 경인로 638  
정진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65-14  
정태모 은평구 서오릉로21길 20  
최인준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황의철 경기 기흥구 신갈로 100  
전주 : 정진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륜3길 7

## 회/원/동/정



### 유혜자(편제)

작년 12월 5일 문학 계간지 <시선>이 주는 “올해의 최고 작품상(수필 부문)” 수상에 이어 12월 7일에는 한국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조연현문학상”을 수상했다.



### 이중광(관리)

시집 “꽃피는 봄이 오면”을 출간했다. ‘라일락꽃피는 마을’ 이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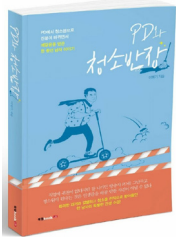
번째가 되는 시집에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는 동안의 경험과 느낌들이 서정적인 詩語들로 적혀있다.



### 이명기(편제)

예능국, 교양제작국PD를 거쳐 영상제작업체 대표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빌딩

청소를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얘기들을 “PD와 청소반장”이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 정재순(기술)

청주MBC 사장을 끝으로 방송생활을 접고, 두원공대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다가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종합 미디어방송인 NTV에서 기술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 박선영(보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인정받아 12월 13일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 시상하는 ‘2018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 이상범(관리)

2012년 CTS 기독교TV 자문위원으로 입사하여 선교국장, 대외협력본부장, 광고·사업 담당이사로 일하다가 2019년 1월 1일자로 CTS 남부방송 지사장으로 전보됐다.

## 동/호/회/소/식

###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

12월 14일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조연현 문학상’과 ‘시선’이 주는 ‘올해의 최고 작품상’을 수상한 유혜자 회원의 수상을 축하했으며, 이견세 회원을 신임 회장으로, 부회장 겸 차기 회장으로 우종범 회원을 선출했다. 이날 모임은 ‘싱글빙글쑈’ 진행자 김혜영씨가 협찬했다.

### 기우회(회장 문정철)

11월 29일 강남강진수산에서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을 가졌다. 회장단은 유임하고, 이원하 회원을 감사로 선임했다.

### 청죽회(회장 이중구)

12월 4일 ‘파노라마뷔페’에서 31명의 회원이 참석해 송년모임을 가졌다. 청죽회 20주년을 맞아 이대교 초대 회장의 청죽회 연혁 발표에 이어, 팔순과 칠순을 맞은 회원들의 축하 행사가 있었다.

### 문기회(회장 조기양)

12월 21일 뉴국제호텔 뷔페식당에서 30명이 참석해 송년 모임을 가졌다. 김규서 회원은 자신의 딸인 본사 정치부 김현경 기자가 ‘비리유치원’ 사건 연속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으로 부터 특종상을 수상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한 차기 사우회 보도부 부회장에 양영철 회원을 추천했다.

### 문우회(회장 이용재)

12월 22일 여의도 소재 ‘차이홍’에서 총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신임 회장으로 최영식 회원을 선출하고, 감사 오수천, 총무 전용립 회원을 각각 선출했다.

## 골프동호회 월례회원을 모집합니다

셋째 주 화요일 오전에 수도권 골프클럽에 연단체팀으로 등록해서 실시할 것이며, 참가 회비는 그린피, 카트비, 조식, 중식을 포함해 1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캐디피는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월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우회원께서는 행사일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문자 또는 ‘엠사우밴드’ 댓글로 신청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원 연락사항은 ‘엠사우밴드’(https://band.us/band/73142794)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골프동호회(회장 김용빈)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6팀으로 월례회를 시작합니다. 월례회는 매월

## 望九 斷想



### 이종민(관리)

해가 바뀌고 또 나이를 먹으니 80세가 됐다. 90을 바라보는 망구望九가 된 것이다.

20년 전 자식들이 호텔에서 회갑연을 열어줬다.(지금은 회갑잔치 같은 것 안 하지만 그때는 회갑연을 성대히 치렀었다. 장수하셨다고) 그때 회갑연에서 하객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태어나 30여년을 참으로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 30년은 잘 살려고 열심

히 일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면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면은 과욕 같았다. 그런데 고희古稀를 훌쩍 넘기고 팔순八旬에 다다랐으니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맞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정답은 건강이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용기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고 한다. 건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튼튼한 몸을 유지하려면 비행기 정비하듯 하면 된다. 비행기는 많은 부속을 조립해 만들어졌다. 비행기 부속은 내구시간만 되면 멸정해도 새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비행기는 늘 새 것이다. 나는 원래

아무거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싸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난다. 좋은 건 가까이 하고 싫은 건 멀리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등산, 골프, 스키, 수영 등 많은 걸 했다. 오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파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다. 그래서인지 몸은 늙어 있는데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얼마 전 학교동기들 모임이 있었다. 60여 년 전 재학 시에는 남학생들이 더 많았는데 최근 모임에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나온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은 여자들이 잔일을 더 많이 해서 인 듯싶다.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던가.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더불어 살

고, 아름다운 꽃을 키우고, 육식보다 채식,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 우리들도 쉽게 할 수 있겠다.

삶이란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뒤섞인 비빔밥.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되면 가야한다. 그러니 되도록 과유불급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두 권이 있다. 건강에 도움이 될 논어論語와 성경聖經이다. 논어는 “예禮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勿視), 듣지 말고(勿聽), 말하지 말고(勿言), 행동하지 말라(勿動)”고 했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사우회원 여러분, 남은 인생 상수여수上壽如水하시고 수복강녕壽福康寧하소서.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춤과 노래와 풍자가 어우러진 MBC 마당놀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한해를 마무리했던 ‘MBC마당놀이’. 잘 알려진 고전을 소재로 하여 춤과 노래, 해학과 풍자의 묘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게 했던 ‘MBC마당놀이’는 1981년 12월 18일 창사 20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체육관에서 <허생전>으로 첫 막을 올렸다.

우리 전통예술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 서왔던 MBC인 만큼 첫해 공연은 당연히 무료였다. 당초 1회 공연으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이진희 사장의 지시로 새해 첫날 녹화방송이 나가자 대단한 반응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레 연례행사로 바뀌었다.

2회부터는 극단 ‘민예’에 제작을 의뢰했고, 3회부터는 지방순회를 시작했다. 5회부터 유료 입장으로 돌아왔으나 관객들은 계속 밀려왔다. 1987년, 연출가 손진책이 새로 만든 극단 ‘미추’와 손잡고 만들었던 마당놀이는 방송사와 극단의 갈등으로 1989년, 1995년, 1996년, 각각 따로 마당놀이를 공연하는 일도 있었다.

갈등이 심화된 2001년, ‘마당놀이’ 상표권 분쟁으로 MBC와 극단 ‘미추’는 완전히 결별하고 각자의 공연을 이어 나갔다. 마당놀이 30주년을 맞는 2010년, ‘MBC마당놀이’는 “평강온달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고, 극단 ‘미추’도 마당놀이 공연을 끝냈다.

30년 동안 체육관과 천막극장을 누비며 250만 관객 동원이라는 흥행몰이를 하던 마당놀이는 2010년 이후 한동안 판이 열리지 않다가 2014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다시 돌아온 마당놀이에는 그러나 간판적인 3인방(윤문식, 김성녀, 김종엽)이 보이지 않는다. ‘감초가 빠진 한약’인 셈이다.



### 27년 전에 만든 『일출봉』



이재갑(편제)

이 사진은 1992년 2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72회 방송됐던 수목드라마 “일출봉”(임 중 극본, 이재갑 연출)의 리허설 장면이다. “일출봉”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여명의 눈동자”의 후속 프로그램이면서 “조선왕조 5백년”이후 1년 만에 선보는 이른바 ‘서민사극’이었다.

『양반, 상놈 계급 간의 모순을 주된 갈등으로 설정함으로써 한복만 입혀놓은 멜로드라마를 재탕하거나, 판에 박힌 궁중 암투사를 다뤘던 기존 사극과는 거리가 있는』(당시 신문의 방송평)드라마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을 시대배경으로, 엄격한 봉건신분사회와 해태가던 조선조 후기 민초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사진 속의 배우(오른쪽)는 전인택씨다. 촬영 장소는 수원에 있는 한국민속촌. 당시 주요 출연자는 유인촌, 도지원, 임영규, 전인택, 한인수, 박순애 등이다.

조연출 중의 한 명이었던 이주환 PD는 뒷날 “인어 아가씨”란 드라마의 연출을 맡았었고, 한인수, 도지원, 이효정 등은 나중에 SBS ‘여인천하’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이 작품과 경쟁한 MBC의 드라마는 공교롭게도 내가 연출한 “홍국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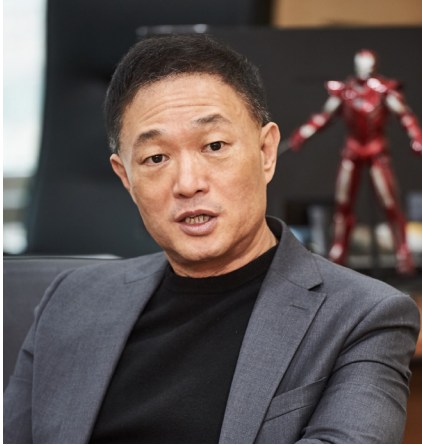




## 인터뷰

## 돌아온 ‘쌀집 아저씨’ 김영희 부사장 副社長

‘양심 냉장고’, ‘기적의 도서관’, ‘나는 가수다’ 등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었으며, ‘쌀집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영희PD가 콘텐츠 담당 부사장으로 돌아왔다. 명성 회복에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MBC에서 그가 앞으로 어떤 화제작을 만들어 소임을 이뤄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기에 상암동 14층에서 정신없이 바쁜 그를 잠시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희 부사장의 취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 온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떠난 지 3년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 제작 환경부터 구성원, 제작 분위기나 문화 등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 온 뒤 여러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말없이 MBC로 돌아 오셨다구요.

네. MBC니까요. 저의 청년시절과 장년시절을 만들어 준 MBC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데 제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사실 이런저런 제안을 받은 건 많지만 직접 만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3월까지의 그냥 쉬고 싶었거든요.

콘텐츠 총 책임자라는 위치가 부담되지는 않았나요.

엄청 부담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콘텐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회사가 저를 책임자라고 생각해준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은 쌓인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잘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일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2012년에 ‘나는 가수다’와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의 Flying Director(제작, 연출에 대한 지도자문) 자격으로 중국 후난위성TV에

파견을 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무렵 중국에선 한류 경계령이 시작됐고, 한국산 완제품이 중국 TV에 팔리는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현지 제작사와 합작 투자,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잇따라 히트작을 내니까 중국 사방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2015년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중국에서 B&R이라는 예능 외주 제작사를 만들었습니다.

첫 작품이 제작비 300억 이상을 들인 ‘폭풍효자’였는데, 3개월간 12회 방영 만으로 광고매출 800억, 순이익 200억을 벌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자신있게 만들었는데 싸드 배치 문제가 터진 거죠. 결국 3년 만에 모든 것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PD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들을 백업해주는 거죠.

MBC뿐 아니라 다른 방송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분위기가 제가 일하던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일단 맡겼으면 간섭하지 마라’는 거죠. 많이 개별화 돼있고 제작 능력도 스스로 습득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PD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예를 들어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는 제작비 문제로 고민한다든지 이런 때 제가 나서는 겁니다.

다만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은 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몰두하라”는 얘기는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우수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그 공백은 어느 정도인가요.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력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작 경험이 짧아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외주 제작이 활성화 된 시대니까 다소의 공백은 외주로 커버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MBC에 몸담았던 PD들의 활용도 포함되겠죠.

예능 전문 PD가 보기에 요즘 MBC 예능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7년째 동 시간대 1등이구요, ‘전지적 참견 시점’도 2,3등을 유지하고, ‘라디오스타’는 10년이 넘게 톱10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무한도전’이 7개월 전에 폐지돼 주말에 공백이 좀 있죠. 그러나 조만간에 돌아옵니다. 일요일을 휘어잡을 새 프로그램도 곧 올 겁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포맷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BC 예능은 선두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도 북경에 다녀오셨는데 3년 전과 요즘의 중국 방송 시장은 많이 다르죠?

그럼요.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얼어붙은 중국 수출 길은 여전히 어렵구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상파나 케이블의 영향력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 그쪽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규제도 그 쪽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구요.

그렇다면 우리의 콘텐츠가 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럼요. 아직은 그 시장에 누구도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출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죠.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의 생명은 기획력인데, 우리 PD들의 기획력은 뛰어나습니다.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MBC의 저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콘텐츠가 중국 모바일 시장에 진입할거라고 자신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 MBC 콘텐츠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반기에 먼저 예능 프로그램이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현행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입니다. 드라마 역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역대 어느 대작 드라마에 꿀리지 않는 대작 드라마가 등장해서 역시 ‘드라마왕국 MBC’라는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도 늘고 경영도 좋아질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염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 주십시오. 잘 해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MBC가 밖에서 걱정하시는 만큼 취약하거나 불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끝으로 사우회 선배들께 한 말씀해주시죠.

예나 이제나 저의 소신은, 돈 잘 버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MBC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MBC를 떠났던 시청자들에게서 다시 신뢰를 얻고 멀어졌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스테이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회사 밖에서의 응원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저희가 열심히 갈고 닦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맥내에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편집장



## 아따, 반장님 부~자 되겠소!!



이명기(편제)

나는 1978년 12월 MBC에 입사해 예능국, 교양제작국 PD를 했고, 1996년부터 3년간은 현대방송 PD, 이후 영상제작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캐나다 워털루에서 4년간의 이민생활을 경험했다.

현재 나는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물청소를 하고 있다. ‘물청소’란 아파트 꼭대기 층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공용공간에 물을 뿌려가면서 기계로 갈고 청소하는 작업이다. 나는 이 작업에서 기계를 다루는 전문가이다. ‘마루 광택기’라 불리는 이 기계는 2마력짜리 16인치, 무게가 약 40킬로그램 되는 중장비다. 바닥의 때나 오물을 제거하는 연마기로 이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 물리학에도 조예가 있어야 되고 상당 기간 실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루 일당은 식대 포함 9만 5천원이며, 월 수입은 대략 20일 기준 190만원 선이다. 나는 지금 일한만큼 버는 일용노동자다.

아래 글은 틈틈히 써놓은 현장기록 일부다.

[2017년 2월 25일]

또 한 차례 이직을 감행했다. 2014년 청소업체에 뛰어들어 2017년까지 10번째의 이직이니 한 곳에서 평균 4개월씩 근무한 셈이다. 업무용 빌딩, 쇼핑몰, 호텔, 주상복합 건물, 면세점, 아파트, 병원 등 참 많이도 돌아 다녔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은 딱 한번 받아봤다. 처음

청소원 생활을 시작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다음카카오 본사에서 야간 청소원으로 1년 근무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이 유일한 것이었다.

작년 7월 중순부터 금년 1월까지 합정역 인근 오피스텔의 청소감독을 마감하고 옮긴 10번째 직장은 역삼동에 있는 대형 맥주홀이다. 요식업종에서 일하기는 처음이다. 이곳 청소원은 청소반장(정식 명칭은 미화감독)인 나와 50대 후반~60대 초반 여성 2명 등 총 3명이다. 3명이 돌아가면서 주, 야간 근무를 하는데, 나는 월 평균 주간 근무 8일, 야간 14일이다. 토, 일은 물론 국경일에도 근무한다. 주말 하루와 평일 하루는 휴무, 월차 하루 휴무로 월 평균 9일은 쉰다.

맥주홀에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전반 1명,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오후반 1명이 근무하지만, 금, 토 주말에는 1명은 오후 11시까지, 나머지 1명은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데 보통 남자인 내가 한다. 이유는 매장에서 나온 맥주병과 플라스틱 컵 등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이다. 피크타임인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2명이 합동근무를 한다.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란 브랜드로, 매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른바 ‘하우스맥주’를 판매하는 이곳 맥주홀은 외관 전체가 강화유리로 된 1, 2층 구조인데, 청소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는 화장실 관리다. 이곳에는 1, 2층에 모두 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2개는 남자용 2개는 여자용이다.

맥주를 마셔서 방광이 팽팽해진 손님들이 줄지어 몰려오는 8시부터 10시까지는 특히 신경을 예민하게 써야 하는데 제일 곤혹스럽지만 중요한 것이 화장지 교체다. 세면대에 있는 종이 타월이 바닥이 나면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보충하면 되지만, 남녀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소진되기 전에 바

로바로 교체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곳의 종이 타월통이나 두루마리 화장지 박스가 열쇠로 열고 잠그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요즘 세상에 누가 화장실 휴지를 훔쳐간다고 이런 시건 장치를 했는지 원)

청소원들 중 김0

숙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김 여사(‘여사’란 명칭은 청소업체에서 여성 청소원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다)는 열쇠로 박스를 열고 종이 타월을 보충하거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새 걸로 교체하고 다시 잠그는 작업 솜씨가 영 느리고 실통치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1분 이내에 전광석화로 끝내는데, 이 분은 끔끔거리면서 보통 3~4분씩 걸려서 겨우 해낸다. 한창 붐빌 때는 이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라.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아뿔싸, 화장지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참담하겠느냐 말이다.

어느 날 밤 9시경, 그날도 김 여사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안, 초조, 긴장, 당혹감 등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이미 소진된 두루마리 화장지 박스를 여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내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막 나오는 순간 “오메 죽겠는거~ 반장님 열람 이쪽으로 와 보시오~”라는 김 여사의 절박한 긴급구조 요청 소리가 내 귀청을 때렸다. 나는 즉시 여자 화장실 앞으로 다가 가서 노크를 두어번 하고는 점잖은 목소리로 “화장실 점검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날리고 들어가 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아랫배를 움켜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여성들을 뒤로 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화장지 박스를 열려고 용을 쓰는 김 여사의 눈물겨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순간 ‘정의의 백기사’가 된 나는 지체없이 김 여사에게 달려가 “그 열쇠 이리 주시오. 이거 하나 못 열고 말여” 핀잔을 줌과 동시에 쥘쥘하게 박스를 열어 순식간에 화장지를 새걸로 교체



하고 다시 바람처럼 잠그는 것으로 이날 밤의 소동은 막을 내렸다. 이런 일이 두어 차례 반복하고 난 이후, 김 여사는 오후 6시만 되면 설령 화장지가 1/3쯤 남아도 아랑곳 없이 무조건 새 화장지로 교체해버리는 것이었다. 가만 보니 어떤 날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그냥 교체해 버린다.

며칠 동안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내가 “아니, 김 여사. 거 화장지 좀 아껴 쓰시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하면 쓰겠소? 안 그러요?”라고 하자 그녀가 통명스러운 말투로 “아니, 반장님은 그날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시요? 내가 이놈의 화장지 바꿀 때만 되면 그냥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러요”라고 받아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렇지. 우리 물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헤프게 쓰면 되겠소? 그거 아직 절반이나 남았구만, 새걸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오. 그란해도 소장이 화장지 아껴 쓰라고 하드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김 여사가 또박또박 따지듯이 묻는다. “그럼, 반장님은 집에서도 마누라가 화장지를 갈 때마다 이렇게 잔소리 하요?” 순간, 감정이 상한 나 역시 웅골지게 쏘아 붙였다. “난 집에서도 하이타이 아끼느라고 뺄쓰도 일주일씩 입고 다니요” 이 멘트가 결정적인 화근이었다. 순간적으로 발딱 일어난 그녀가 표범처럼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대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아따! 반장님 부~자 되겠소”라고 쏘붙이면서 화장실 문을 ‘깡’ 닫고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젠장,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 ‘MBC 뉴스데스크’여 영원하라!



오호진(보도)

‘韓國 第一’을 내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TBC 뉴스가 MBC 뉴스데스크를 이길 수 없고,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를 넘어설 수 없고, 미풍이 미원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병철 회장은 갖지만 삼성은 ‘이병철 정신’으로 한국 제일을 넘어서서 세계 제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당시 TBC는 MBC보다 기자 수도 훨씬 적었고, 서울과 부산에서만 전파를 송출했다. TBC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MBC를 이기겠다고 악을 박박 썼다. TBC 기자들은 꼭 베프콩 같았다. 눈에 불을 켜고 다녀서 눈이 뽀짝뽀짝 빛났다. 그런 모습으로 뉴스를 찾아다니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다. 그쪽 데스크들은, 시시각각 라디오를 모니터하며 기사가 늦거나 빠지면 불호령을 치는 것은 물론, 점수를 매겨 고

과에 반영한다고 했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난 그때 그 나이 어린 베프콩들이 참 무서웠다. 뽀짝뽀짝 빛나는 그들의 눈을 보면 우선기가 질렸다. 당시 나는 학교를 있는 대로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고3을 4년이나 가르치다가 늦게 MBC에 입사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경찰기자는 타 사에도 없었다. 어딜 가나 후배들이었다. 이런 판에 빠릿빠릿하고 썩썩 찬바람을 일으키며 다니는 그 젊은 베프콩을 만나면 그만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그렇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그 베프콩들에게 총 한 방 맞지 않고 신입기자 시절을 잘 견뎠다. MBC 뉴스데스크를 빛내는 데 작지만 한 몫 거들었다.

베프콩과 싸우는 데 나는 세 가지 작전을 썼다.

첫째, 좀 우직한 농업적 근면성을 따랐다.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밤낮으로 논밭에 나가 쉬지 않고 곡식을 돌본다. 집에도 가지 않고 밤낮으로 경찰서를 돌았다. 잠도 형사계 나무의자에서 쪼그려 자는 날이 많았다. 여름에 보름동안 집에 안 들어갔더니 옷에서 쉼내가

났다. 쉴 때도 경찰관이나 취재원과 놀았다. 그래서 기자실에서 흔히 즐기던 카드, 화투, 바둑, 장기를 지금도 할 줄 모른다.

둘째, 감싸 안으려고 노력했다. 늘 경찰 곁에 있으니까 정보가 빨라서 취재도 빨랐다. 일반전화로 회사에 기사를 불러주고 나서 TBC 기사를 애써 찾아 먼저 풀해줬다. 이렇게 몇 달을 하니 특종을 하려고 기사를 몰래 부르고 숨어 다니던 상대방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다.

셋째, 뉴스데스크에 나갈 1분 30초짜리 뉴스 꼭지를 기억하기 쉽게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구성했다. 이미 4년 전에 소설가로 데뷔한 기성작가라서 이런 면에 생각이 조금 빠를 수 있었다.

외신 뉴스도 나의 선생님이었다. 당시엔 외신 뉴스 필름이 스크립트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리포트와 화면이 딱딱 맞았다. 우리 에겐 그런 기술이 아직 없었다. 하도 신기해서 외신부에 가서 스크립트를 보니 영화 시나리오 같았다. 당시 우리는 미국 CBS와 뉴스협약을 맺고 있었다. CBS에 ‘월터 크론

카이트’가 진행하는 정규뉴스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고, 얼마 후 30분짜리 뉴스 필름이 스크립트와 함께 도착했다. 외신부에 있는 16mm 영사기에 이 필름을 걸고 하나하나 분석하며 뉴스 제작 기법을 독습했다. 이 기법으로 뉴스를 만들자 선배들이 놀라워했다. “어떻게 말하라면 말하고 춤추라면 춤추는 뉴스를 만드냐?”고 하는 선배도 있었다. 마침내 김영수 보도국장이 ‘오 아무개처럼 뉴스를 만들라’고 해서 내 기법이 퍼지게 됐다. 넷사 보도국장회의 때는 뉴스제작기법을 강의하라고도 했다.

되돌아보니 늦은 나이에 MBC에 입사해서 악전고투를 겪으며 지나온 세월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온 나이테처럼 몸속에 단단히 박혀 있다. 그 굳은살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돼온 것 같다. 지금도 삼성의 ‘이병철 정신’은 진화하고 있는 듯하다. MBC도 그동안 천하의 삼성을 뒤에 세우는 정신을 계속 강화시켜 온 것으로 믿고 있다. 그 정신으로 앞으로도 ‘뉴스데스크’가 영원하길 바란다.

[www.jceye.co.kr](http://www.jceye.co.kr)

# 안과수술 내과·건강검진은, 여의도 JC빛소망안과!



- 내과/건강검진센터 운영
- 각 분야별 9명의 전문의 협진 시스템
- 노안 백내장 수술 63,000건 이상 (2019.01 기준)
- 단일층 1,100평 규모
- 첨단 검사 및 수술 장비 보유



[문의/예약] 02.2138.1063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맨하탄빌딩 6층 (구,여의도백화점)